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부천 스포피아 문제의 본질

국가위탁시설 운영을 둘러싸고 조계종 유지재단 불상이가 압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천 스포피아 매각결정에서 시작됐다.

부천 스포피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해 1999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조계종유지재단이 관리, 운영권을 수탁받은 시설로, 석왕사 측이 유지재단을 관장자로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2004년 부천 스포피아가 7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근로복지재단이 3개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2005년 9월 65억에 부평 '은혜와진리' 교회에 매각하면서 문제가 됐다.

적자사업을 위탁받아 겨우 살려놓은 시설이 교회에 매각되자 석왕사는 부당성을 제기하며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공과금과 임금·퇴직금 지급을 유보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14명은 수탁계약을 맺은 법적책임자 유지재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체불임금의 책임이 석왕사 측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스포피아 직원들은 항소

했고, 고등법원은 유지재단에 책임있다고 판결했다. 1억 여 배상금으로 인해 결국 조계종 유지재단 통장 가운데 하나가 압류당했다.

교계 모 언론은 이 소송 배후로 영담 스님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일부가 석왕사 부설기관에 재취업한 사실과 소송대리인이 영담 스님이 발행했던 신문의 논설위원을 역임하는 등 정황상의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왜 종단 재단을 재산을 관할하는 유지재단이 복지재단을 대신해 시설을 수탁했는지, 스포피아 사태로 조계종 계좌가 가압류되는 명예훼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추후 분명히 밝혀야 할 과제다.

우선 현재 복지재단이 수탁해 일반사찰이 운영하는 불교계 복지체계가 이번 사태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압류된 조계종 통장에서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늦었지만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운영 체제정비 등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계를 무시하고 교회 측에 매각하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정부와 공단에 그 책임을 물어아하지 않을까.

## 東大 불교대학 국제화 시동

### 외국인 교원 확보·국제 여름학교·해외탐방 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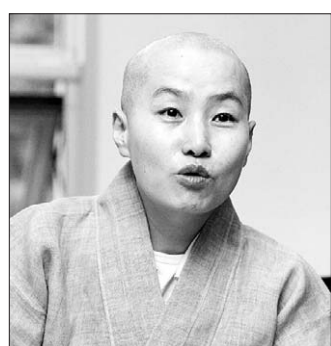
조계종립 동국대의 근간인 불교대학이 국제화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세계화에 나선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해원)은 4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대학 국제화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국제화를 위해 불교대학은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 △동국 국제 여름학교 운영 △영어특강반 운영 △해외탐방 봉사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 중이다.

불교대학은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영어권의 불교학자들을 섭외 중이다. 티벳어 및 밀교, 범어 및 인도고대철학, 중국불교 전공자 각 1명을 내년까지 초빙하기로 했다.

박사논문들을 갖 마친 젊은 학자를 초빙해 현재 8개 강좌인 영어 강의 18개 과목(개설강좌의 30%)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장 해원 스님.

늘리고, 휴식년을 맞은 해외의 저명 학자를 확보해 국제화된 교수진을 갖춘 계획이다.

하계방학 동안에는 국제화추진단이 시행중인 국제 여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에 요하네스 브롱크호스트 교수(스위스 로잔대)와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UCLA)

를 초청하고,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 불교대학 학생의 참여를 도모한다.

또 불교대학 차원에서 자체 영어 특강반과 해외탐방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인스님을 비롯한 재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올여름 첫 파견할 해외탐방 봉사단은 학생 5명을 선발해 태국에 파견한다.

해원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상은 종립 동국대의 위상에 달렸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불교대학의 대외적 위상 정립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대학에는 명심심리상담학과도 개설돼 2학기부터 석사 및 지도자과정도 모집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중앙박물관 '승·구도자의 길' 전시 개막식.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 이하 박물관)은 4월 28일 개관 2주년 기념 특별전 '승·구도자의 길'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불·법·승 삼보(三寶) 특별전의 세 번째 전시인 이번 특별전은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16나한도(보물 제1367호)를 비롯한 보물 11점을 포함해 총 158건 247점이 전시되며 △스님의 일생 △위대한 예술가로서의 스님 △구법과 호국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 진각종 혜정 정사

#### 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출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신임 대표이사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사진)를 선출했다.

진각복지재단은 4월 29일 서울 성북구 법인 회의실에서 제74회 이사회를 갖고 위임을 포함한 참석이사 8명의 만장일치로 혜정 정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혜정 정사는 앞으로 4년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되면 공식적인 취임 행사는 5월 15일 진전여교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 수경·미산 스님 문화재 위원 위촉

#### 문화재청 위원 줄이고 여성비율 높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수경 스님과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미산 스님이 각각 문화재청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불교학)와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불교사)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경 스님.



미산 스님.

문화재청(청장 이견무)은 4월 26일 문화재위원회 위원 80명과 전문위원 130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현행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가 25일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위촉된 수경·미산 스님을 비롯한 210명의 신임 위원은 2011년 4월 25일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위원 선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120명에서 80명으로 대폭 줄이고 여성 전문가를 13.3%에서

20%로 확대 위촉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잠정목록 대상 관리를 전담하는 세계유산 분과를 신설했다. 하지만 국보 지정분과와 문화재경관분과를 폐지하고, 공예와 예능분야로 분리 운영하던 무형문화재 관련 분과를 한 개로 통합해 전체 11개 분과위원회가 9개로 축소됐다.

문화재청 유건상 사무관(문화재정책과)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균형감 있는 안건 심의가 가능하도록 각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종무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

#### 조계종 6월 9~11일 제3기 종무행정 강좌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원화)는 6월 9~11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기 종무행정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포교', '행정서비스와 쌍방 커뮤니케이션' 주제의 특강을 비롯해 '종무행정과 종무원', '정부 등 공공행정 안내 및 대응'에 대한 기획강의 등이 편성돼 있다.

원화 스님은 "사찰 행정처리 전산화가 확대되고 사찰고유의 기본업

무처리 외에 사찰행정과 공공행정 영역과의 관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종무행정강좌는 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사찰과 종단의 종무행정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대상은 사찰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 등 사찰종무 종사자는 물론 사찰신도 및 본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5월 12일까지 선착순 50명, 수강비 20만원. (02)2011-1706 조동섭 기자

###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6~7월 열려

2009년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가 6~7월 공주 전통불교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본말사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6개 권역별로 2박3일간, △사찰의 국가법령 문제와 예산 활용방안 △국가복음화전략(성서화운동)과 위기의 한국불교 △사찰, 지역을 살리는 희망복지센터 △갈등관리 역량강화 등 특화된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 담당자는 "전통불교문화원 개원으로 예년까지 나뉘어 열렸던 중진주지연수가 폐지됐다"며 접수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해당 교구본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5월 22일까지 소속 교구본사로 제출하면 된다. (02) 2011-1807 조동섭 기자

### 종범 스님 승가대 최초 명예교수

#### 중앙승가대 이사회서 결정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중앙승가대 최초의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중앙승가대 이사회(이사장 지관)는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사회는 중앙승가대 편제상

교학처·총무처만으로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실을 설치하고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을 신임이사로 임명했다.

조동섭 기자



## 선각종 국태민안기원 및 생전 예수시왕칠재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초의 혜명을 계승하고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하여 중생교화에 주력하신 각 사암 주지스님의 법체청안하심과 대소불사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축년 윤년을 맞아 중생들의 다짐생애 지은 업장소멸과 죄업을 생전에 참회하고 인로왕보살님과 염부제시왕님께 선법을 닦아 내생에 성불코져 발원하는 생전예수시왕칠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각 사암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현존에는 무량한 복락을 사후에는 극락정토에 거듭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생전예수재 봉행위원장 원각 진원 합창

- ◆ 일 시 : 2009년 5월 17일 (음력 4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 올림포스호텔 특별법단 (☎ 032-762-5181)
- ◆ 주 최 : 대한불교선각종 인천 계양사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 ◆ 후 원 : 선각종 전국 교구 종무원 ◆ 증 명 : 중정 영담 정업 대중사

◆ 문의전화 : 인천 계양사 (인천시 동구 화평동 365-3호)  
전화 032)765-3207 / 010-6359-7872 / 016-715-1085  
선각종 총무원 (전남 강진군 용천면 개산리 391번지)  
전화 061)433-2233, 3233 / 팩스 061)433-2425 / 011-795-1420 진목스님